

# 2024년 국내외 경제전망

누적되는 리스크 속에서  
낮은 단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 해

December 2023





# Agenda

<b>1.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b>	<b>07</b>
1-1. 글로벌 경제 현황	08
1-2. 글로벌 경제 전망	09
1-3. 글로벌 주요 이슈	12
<b>2. 2024년 한국 경제 전망</b>	<b>18</b>
2-1. 한국 경제 현황	19
2-2. 한국 경제 전망	20
2-3. 국내 주요 이슈	21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26

# 2024년 경제 및 산업 전망: Summary



## 글로벌

2024년 세계경제는 비우호적인 패러다임 변화추세가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금년 수준의 성장 전망

1

### 글로벌 경제운용과 성과에 비우호적인 패러다임 변화 추세 지속 강화

- 인플레이션 민감도 상승, 기술안보와 산업정책 강화, 다중 블록화 등

2

### '24년 글로벌 경제는 '23년과 유사하게 완만한 회복세 전망(3.0%)

- 팬데믹 이전 성장추세('15~'19: 3.4%)보다 낮고 팬데믹 이후('20~'23: 2.5%) 보다는 높은 수준

3

### 국가별로는 '23년 선방했던 국가(미국, 중국, 일본 등)는 회복세가 약화되고 낮았던 국가(EU, 한국 등)는 회복세가 강화

4

###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금리는 점진적 하락, 달러화는 완만한 약세 전망

- 다만, 시장을 위축시키는 이벤트(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거시 지표 서프라이즈 등) 발생 가능성도 높아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화 전망의 방향성이 약화되거나 역전될 가능성 상존

5

### '24년 글로벌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요인은 기회보다는 리스크 쪽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

- |                          |                |
|--------------------------|----------------|
| ① 고금리의 시간차 역습            | ④ 중국 리스크       |
| ② 통화정책, 거시변수, 시장기대간 상호작용 | ⑤ 미국의 소비 지속가능성 |
| ③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정도          | ⑥ 미국 대선        |

# 2024년 경제 및 산업 전망: Summary



## 국내

2024년 한국경제는 금년보다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누적된 리스크로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1

### '24년 한국경제는 '23년(1%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 전망(2%대 초반)

- 글로벌 교역 증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
- 다만, 전반적인 내수가 부진(소비, 건설투자)하여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불확실성이 커 그 속도는 기대보다 늦을 것으로 평가

- 낮은 체감경기에 대한 부양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를 수용할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
- 완화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금리 상승 부담,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부담, 완화적 금융정책은 부채 누증과 부동산시장 과열 부담 등

3

### '24년 한국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요인도 기회보다는 리스크 쪽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

- ①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지연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부담
- ② 통화정책의 딜레마(경기 vs 물가·환율) 상황 누적
- ③ 수출 회복 정도
- ④ 글로벌 디리스팅에 대한 적응정도

4

### [업종별] '23년은 일부 업종(호텔레저, 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24년부터는 新 경제환경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회복 추세로 전환

-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 IT와 화학업 주도의 실적 증가 기대
- 주요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ESG, 인구고령화)에 따른 향후 유망산업은 ①인공지능, ②배터리, ③원자력발전, ④스마트농업, ⑤로봇이 될 것

# 글로벌 경제 게임규칙의 패러다임 변화

## 1 공급 제약 경제: 인플레이션 민감 경제 + 무제한 통화완화(QE) 제약

1990년~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만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던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전 종식과 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li> <li>- 풍부한 노동력(중국/인도, 친이민 정서) + 값싼 원자재(러시아/ 중남미) → 낮은 원가의 상품 제조 가능</li> </ul> </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어려운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냉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li> <li>- 노동력 제약(중국 인구감소, 반이민 정서) + 러/ 중국에 대한 De-risking</li> </ul> </li> </ul>

경기침체 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이 통화완화(QE) 가능하던 시대의 종식  
→ 향후 QE는 인플레이션을 촉발

## 2 기술 변곡점 시대: 초격차 추구 + 기술안보 + 산업정책의 시대

1990년~2010년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격차 유지하며, 글로벌 분업화 통해 신생국의 catch-up 전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 선진국: 첨단기술, 원천기술</li> <li>- 한국, 중국 등 catch-up 국가: 반도체, 통신 등 응용기술</li> </ul> </li> </ul>
2010년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을 필두로 기술격차 급속히 축소. 첨단·원천 기술에 도전</li> <li>• 안보와 경제의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 기술의 대거 등장</li> </ul>

선진국의 산업기술정책 강화, 기술이전의 제한, Choke point(조임목) 기술 보유 경쟁

## 3 다중 블록화 세계: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등 종합 경쟁력 필요시대

기정학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블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li> </ul> </li> </ul>
지경학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ICs 중심 원자재, OPEC 원유 vs 미 동맹국의 핵심광물(IPEF)</li> <li>- 경제적 이슈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거래적 국가군 형성(T25)</li> </ul> </li> </ul>
지정학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세계(G20) → G7+a vs BRICs +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체제: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경제: Global North vs Global South</li> </ul> </li> </ul>



#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

- 1-1. 글로벌 경제 현황
- 1-2. 글로벌 경제 전망
- 1-3. 글로벌 주요 이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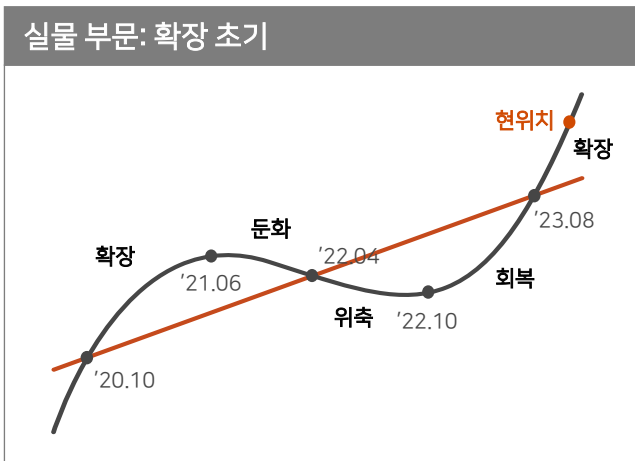
# 1-1. 글로벌 경제 현황 : 실물 확장 초기 + 금융 긴축 지속

- 실물 부문: '22년 침체기를 거쳐, '23년은 회복기를 마치고 확장 초기에 진입
  - '22년과 달리 '23년은 당초 예상 대비 회복 속도가 빨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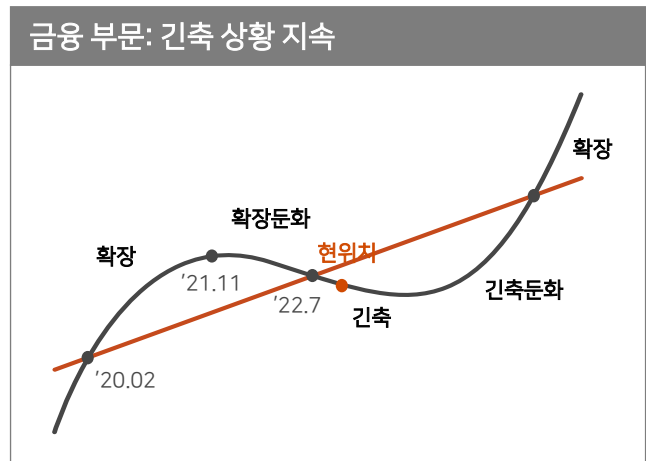
'23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 '22.10월 vs '23.10월 (IMF) (단위 : %)

글로벌	선진국	신흥국	미국	중국	한국
2.7 → 3.0	1.1 → 1.5	3.7 → 4.0	1.0 → 2.1	4.6 → 5.0	2.0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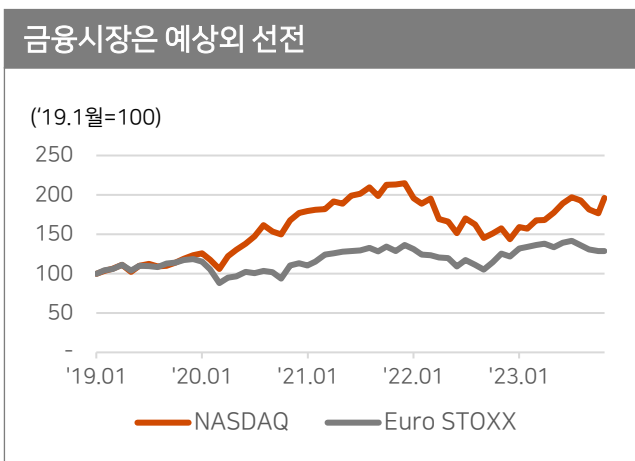
- 금융 부문: '22년 중순 이후 긴축 기조가 지속 확대 중이나,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
- 비교적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약한 이유는 ① 긴축적 통화정책의 장기화 우려 ② 인플레이션 위협 지속 ③ 지적학적 리스크의 출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인
- '23년 경제 키워드 및 내러티브의 변화
  - 인플레이션 peak-out ('23.1) → Slow & Rocky recovery ('23.4) → 뱅크위기 회복 탄력성('23.7) → Higher for longer('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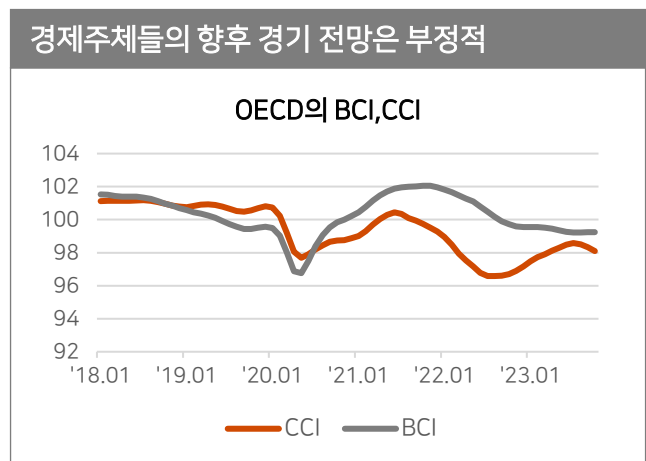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20.01~'23.09)



\*(미국) M2/GDP 수준 이용 ('20.01~'23.09)



Source: Quantwise



\* BCI: 기업신뢰지수(향후 경기전망) CCI: 소비자 신뢰지수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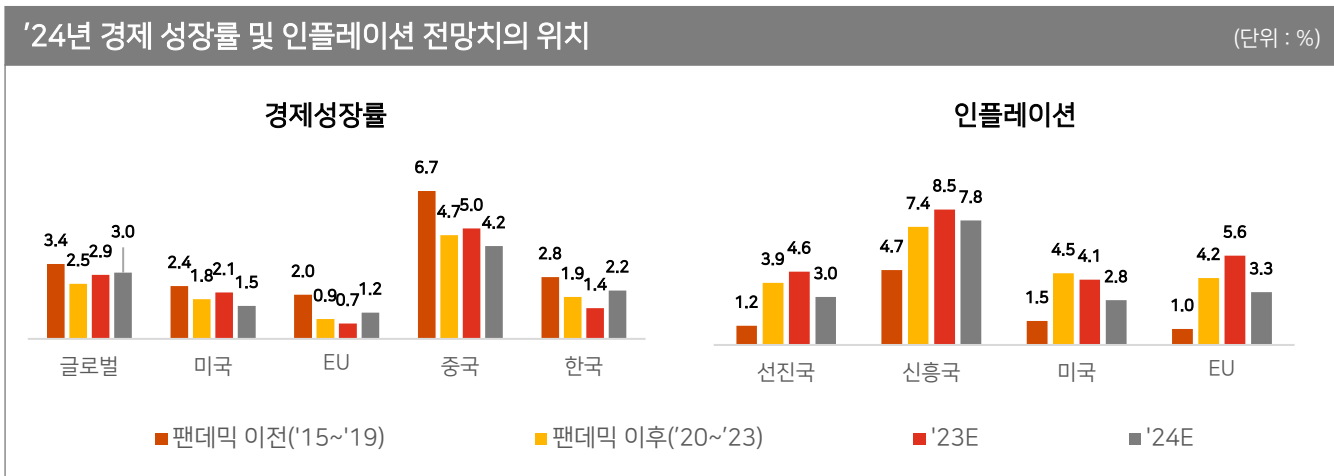


# 1-2. 글로벌 경제 전망 : ① 성장률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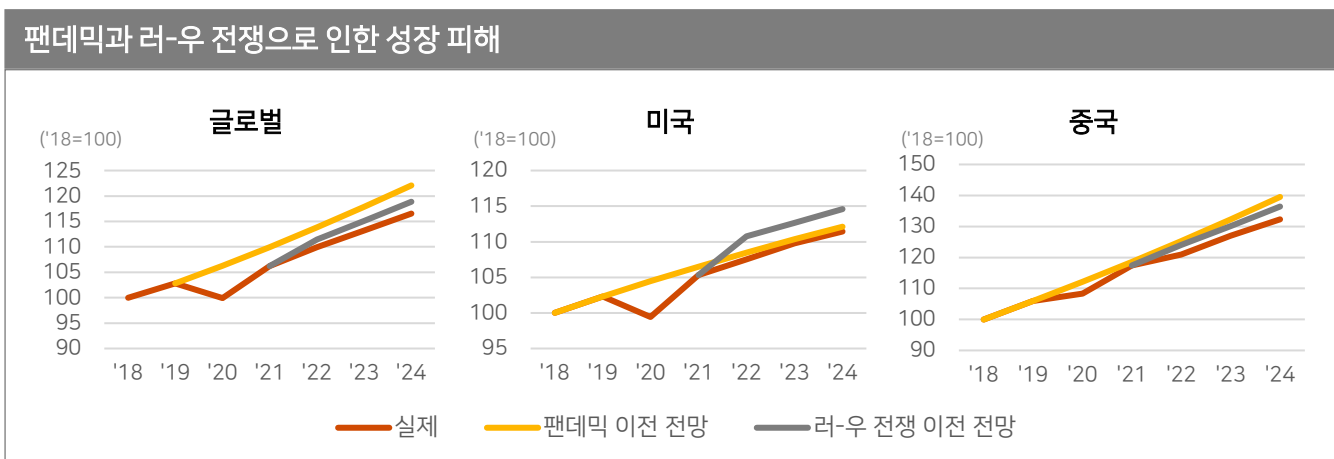
- '24년 성장률 전망(IMF, '23.10월): 글로벌(3.0%), 미국(1.5%), EU(1.2%), 중국(4.2%)
  - 글로벌: '23년과 유사. 팬데믹 이전('15~'19년: 3.4%) 대비 낮고, 이후('20~'23년: 2.5%)대비 높은 수준
  - 미국: '23년 예상 외 선전 이후 '24년은 잠재성장률(2% 수준)을 밑도는 경기 둔화 예상
  - 중국: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되는 가운데 리스크(고령화, 부동산, 미-중 패권갈등) 산재
- '24년 인플레이션 전망(IMF, '23.10월): 증가폭은 둔화되지만, 예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① 공급망 분절 등 인플레이션 민감 경제 체제로의 전환 추세에 더해, ②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③ 원유 감산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도달은 요원할 것

## Viewpoint

- '24년은 팬데믹, 러-우 전쟁 등의 충격에서 벗어나, 낮은 단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한해
  - 성장률은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단계,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균형점 모색
  - '24년 기준 세계 경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4.6%, 러-우 전쟁으로 인해 2.0%의 영구적 성장 손실을 입었으며, 미국은 각각 0.6%, 2.8%, 중국은 각각 5.2%, 3.0%로 중국의 손실이 가장 큼



Source: IMF('23.10)



\* 팬데믹 이전 전망: '19.10월 IMF 전망치

\* 러-우 전쟁 이전 전망: '21.10월 IMF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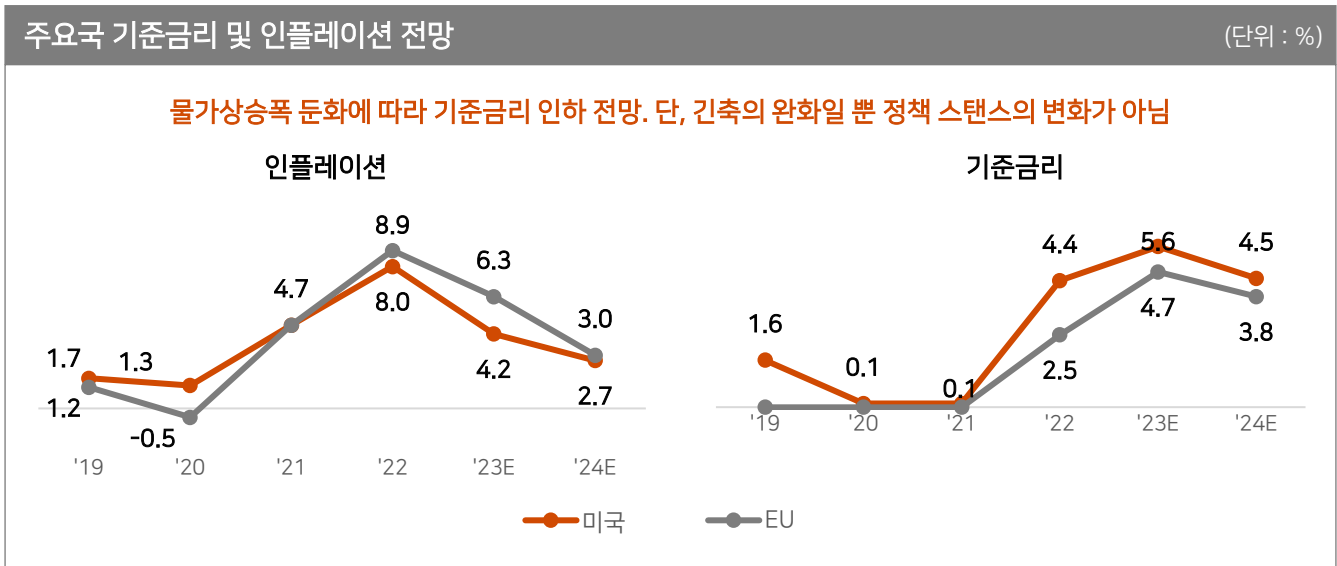
# 1-2. 글로벌 경제 전망 : ② 금리

■ '24년 글로벌 금리 전망(시장 컨센서스, '23.11월: '23.3Q 4.6% → '24.4Q 3.7% (미 10년물 국채 기준))

- 인플레이션 완화, 경기둔화에 따라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금리 인하 단행하며, 이에 따라 시중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23.1Q	'23.2Q	'23.3Q	'23.4Q	'24.1Q	'24.2Q	'24.3Q	'24.4Q	'22	'23E	'24E
미국	3.47	3.84	4.57	4.52	4.31	4.09	3.90	3.74	3.88	4.52	3.74
EU	3.21	3.24	3.72	3.64	3.55	3.39	3.30	3.20	3.56	3.64	3.20

Source: Bloomberg('23.11), 음영은 전망치



Source: Bloomberg('23.11), 인플레이션 전망은 IMF전망('23.10)과 다소 차이

## Viewpoint

■ 시장금리 결정 요소별 평가: '23년이 금리 Higher 구간이었다면 '24년은 Longer의 시기

	시장 전망 대비 변동 가능성	내용
기준금리	↑	경기둔화 속도가 늦어,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커진 상태 → 하락속도 지연 우려
경기	→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
지정학적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돌발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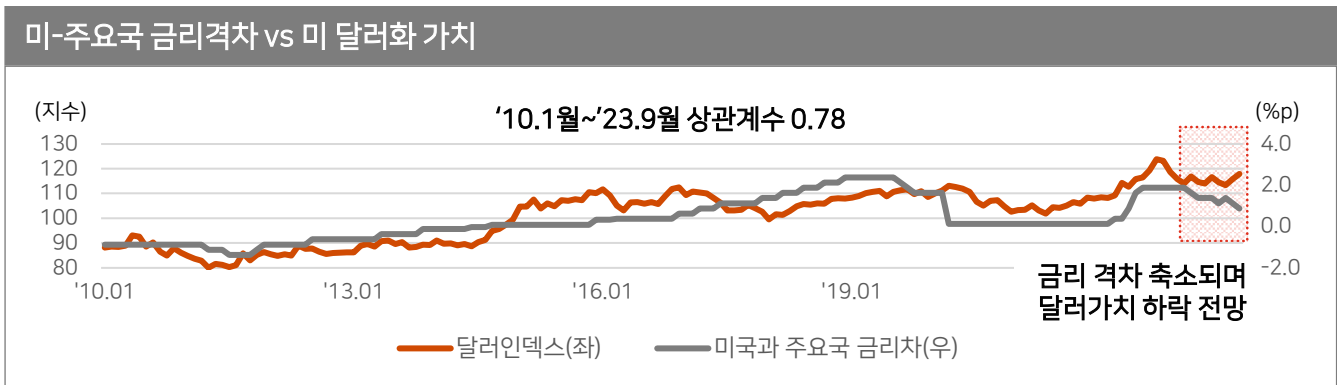
- 공급 제약 경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정상화(주요국 목표: 2.0%)까지 긴 기간 소요 예상.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시장 기대보다 금리 하락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평가

# 1-2. 글로벌 경제 전망 : ③ 환율

- '24년 달러 인덱스 전망(시장 컨센서스, '23.11월): '23.3Q: 106.2 → '24.4Q: 99.9 (5.9% 하락)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마무리 및 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달러 가치 점진적 하락 예상

환율 전망 컨센서스: 미달러 인덱스								(1973.3월=100)			
'23.1Q	'23.2Q	'23.3Q	'23.4Q	'24.1Q	'24.2Q	'24.3Q	'24.4Q	'21	'22	'23E	'24E
102.5	102.9	106.2	106.0	103.9	102.8	101.2	99.9	96.5	103.5	106.0	99.9

Source: Bloomberg('23.11), 음영은 전망치



Source: 통계청, 한국은행

## Viewpoint

- 달러화 가치 결정 요소별 평가: 달러 가치 점진적 하락 전망하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

	시장 전망 대비 변동 가능성	내용
미국 금리	↑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하락이 느리게 진행
미국 경기	→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
글로벌 리스크	↑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돌발 가능성

➢ 미 고금리 지속, 글로벌 리스크 확대, 미 대선 등 고려 시 달러화 강세 재현 가능성 상존

- 원/달러 환율 결정 요소별 평가: 한국경제 특수성 고려 시, 수출회복에 따른 달러 유동성 증가로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다만, 글로벌 리스크는 환율 하향 안정화 제약 요인

	시장 전망 대비 변동 가능성	내용
경상수지 흑자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
한국 경기	→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
글로벌 리스크	↑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돌발 가능성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① 고금리의 본격적 공격

- '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에 각 경제주체들이 예상보다 잘 적응해왔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대응 수단도 소진되면서 '24년은 본격적인 후폭풍 도래 가능성
- **가계: 고금리에 견딜 수 있었던 수단이 점차 소진되면서 부담 증가**
  - 팬데믹 기간에 축적된 초과 저축 소진 중. 기존 저금리 대출의 리파이낸싱 도래
  - 주택가격 하락하며 DTA(자산대비 부채비율) 상승: 12개 선진국 실질 주택가격 10% 하락('22.1Q~'23.2Q). '25년까지 추가 14% 하락 전망(BIS, The Economist 재인용)
  - **소비여력 감소하면서, 소비가 경기 완충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
- **기업: 고금리를 견디게 했던 수단이 사라지며 부담 확대 → 부도율 증가**
  -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 주기 도래.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도율 증가 중
  - **디레버리징(부채조정)에 따라 기업과 경제 모두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 점증**
- **금융기관: 대출자(가계/기업)들의 부담 증가로, '24년부터 부작용이 본격화**
  - 고금리로 인한 보유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 B/S 악화
  - 기업 및 가계 부도로 부실자산 증가.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행 자산의 10% 수준) 리스크 점증
- **정부: 고금리 장기화 시 정부재정 운영의 제약이 확대**
  - 부채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하는데, 재정수요(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대응 등)는 더 크게 증가하여 쉽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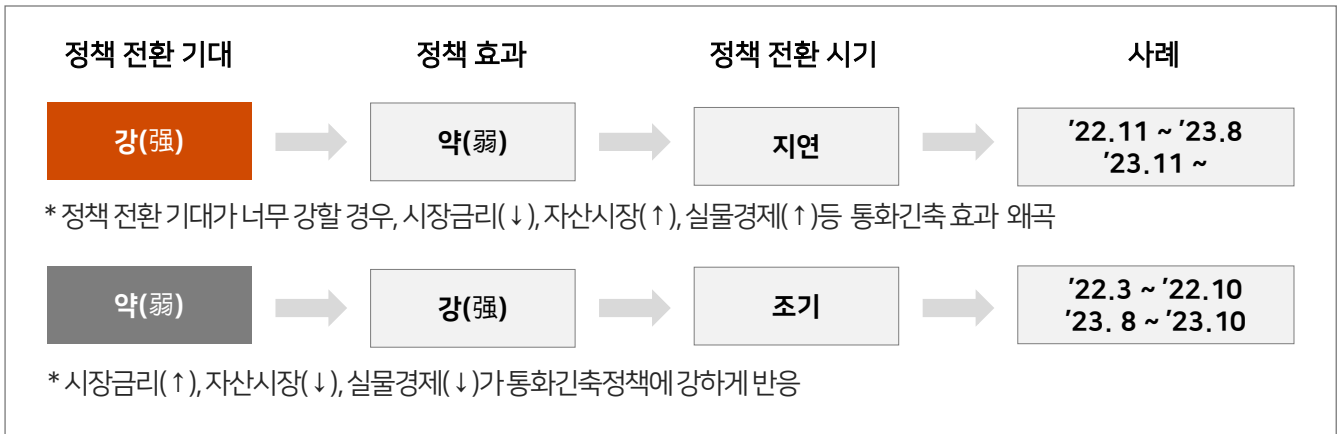
## 고금리에 따른 각 경제주체별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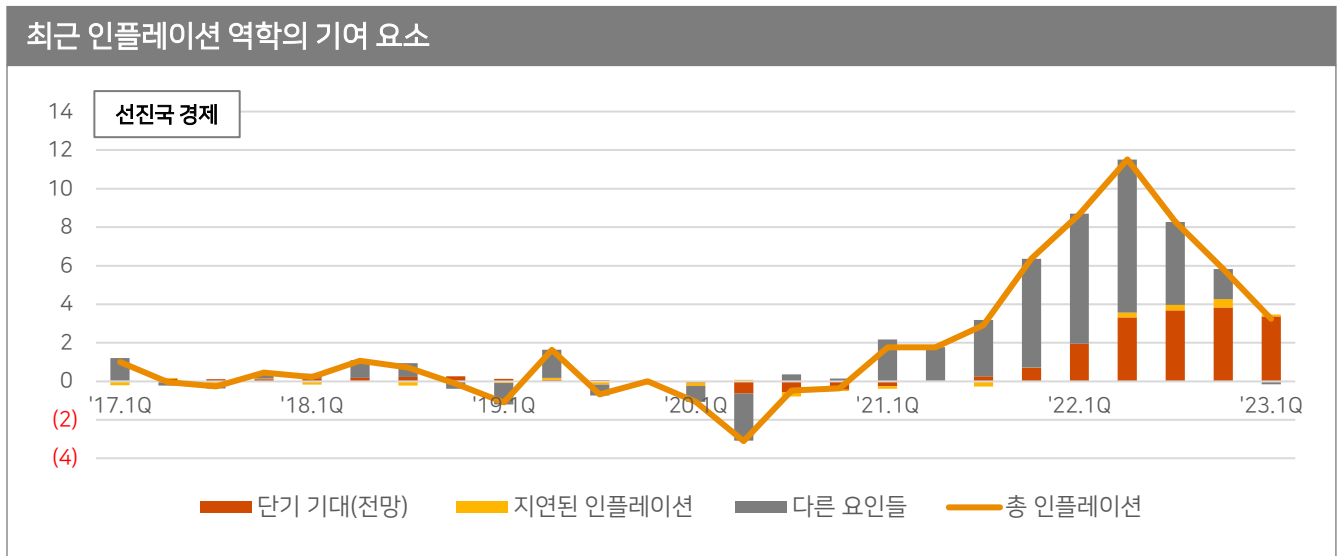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 ② 통화정책, 거시변수 시장기대 간 상호작용

- 긴축적 통화정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호 작용하면서 거시변수와 통화정책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이번 긴축 기간에는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강도가 시장변동성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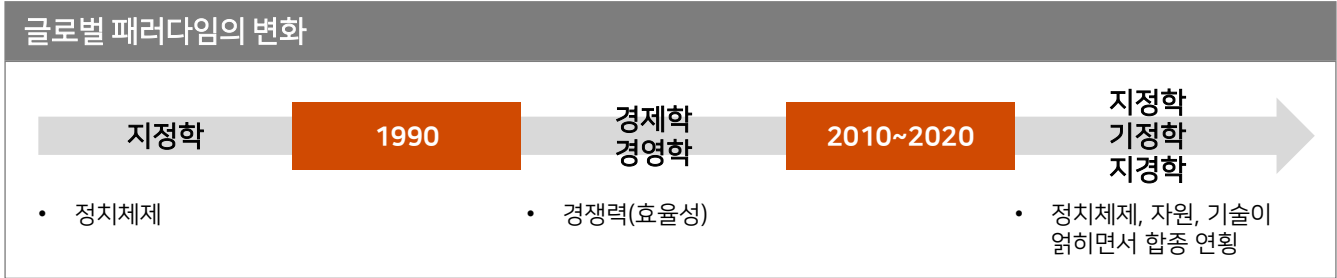
- 2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의 하방 지지선 (3% 수준)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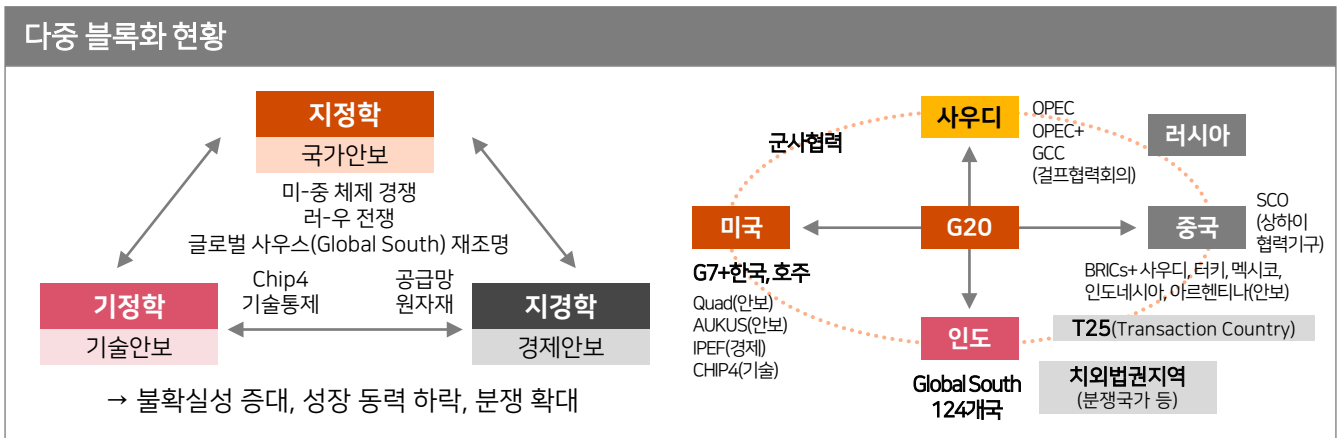
- 향후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한 시장기대와 미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내년도 실물과 자산시장의 장단기 변동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잘 버티고 있는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아직 남아 있는 물가를 잡을 것인지(higher for longer) vs. 현재 연착륙하고 있는 경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잡힌 물가를 천천히 잡아 나갈 것인지(점진적 금리인하)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③ 다중 블록화

-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 중



- 미국 중심의 단일 국제질서 → 미중 양극화 + 소규모 블록으로 합종연횡
- 글로벌 경제 운용 메카니즘이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정치체제, 자원, 기술 등 복잡화



## Viewpoint

- 안보, 정치, 경제, 환경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리스크 현재화 가능성 점차 누적
-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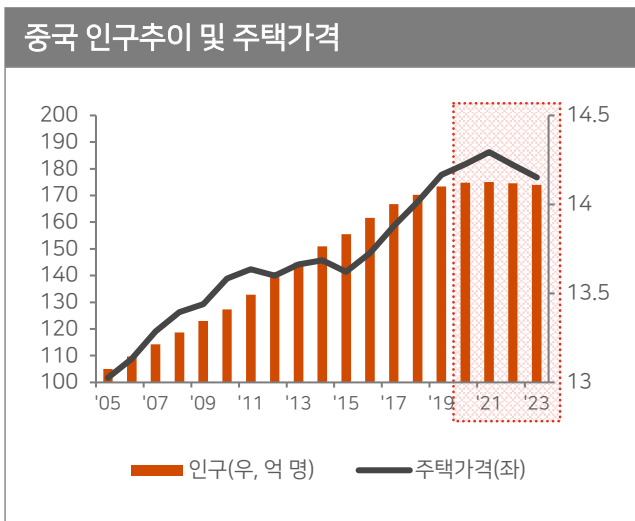
## '24년 글로벌 10대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	확률	영향
정치	① 미대선과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	중	중
	② 경제적 불균형 등에 따른 사회갈등 분출	고	중
	③ AI의 부작용으로 인한 제도와 체제 신뢰위기	중	하
경제	④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중	고
	⑤ 그린테크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무역 갈등	중	고
	⑥ 중국의 정책 실패와 통제경제로의 후퇴	하	고
군사	⑦ 러-우 전쟁의 확산(세계 전쟁)	최하	최고
	⑧ 이-하마스 전쟁의 확산(주변지역 확산)	최하	고
	⑨ 중국의 대만 침공	하	최고
환경	⑩ 이상기후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와해	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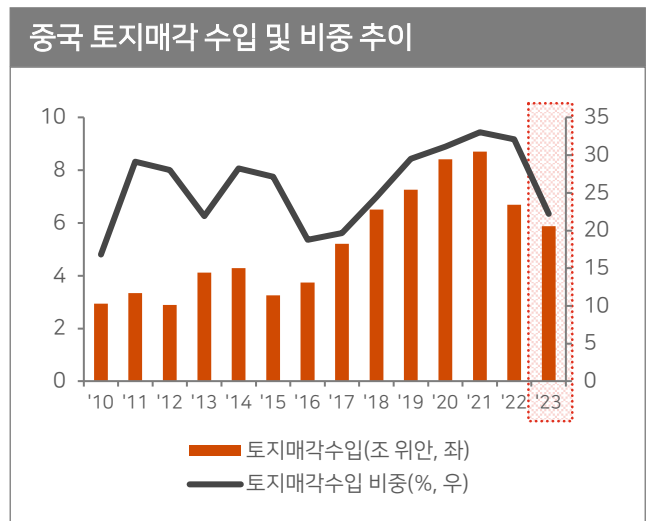
Source: EIU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④ 중국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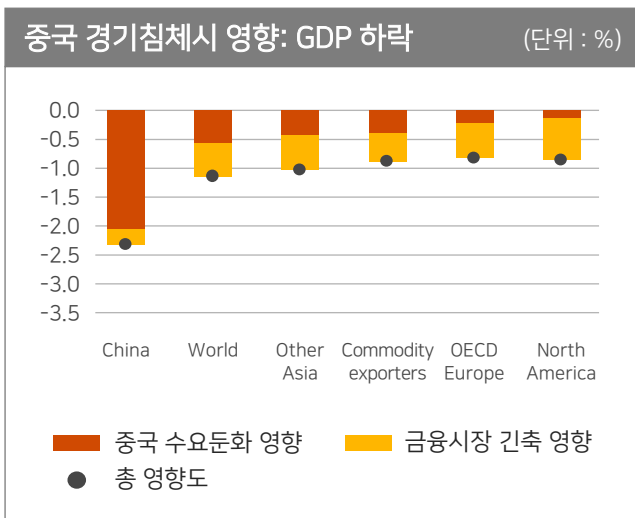
- 중국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되는 가운데 리스크 산재
  - 인구와 투자(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 미국의 기술봉쇄 + 친기업 정서 약화로 경제활력 감소
- 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의 근간인 부동산 가격이 2년 이상 하락하고 있어 재정수입, 투자, 고용, 성장, 기업 파산, 금융기관 부실 증가 등 전방위 부정적 효과 지속
  -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8.7조위안('21년)에서 5.9조위안으로 크게 하락
- 부동산발 위기 발생 등으로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있을 경우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0.6%p 하락하고, 이 여파로 국제금융시장도 악화될 경우 1.1%p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OECD, '23.9월)
  - \* 중국의 수요가 3%p 급락 가정 ('14년, '17년 수요감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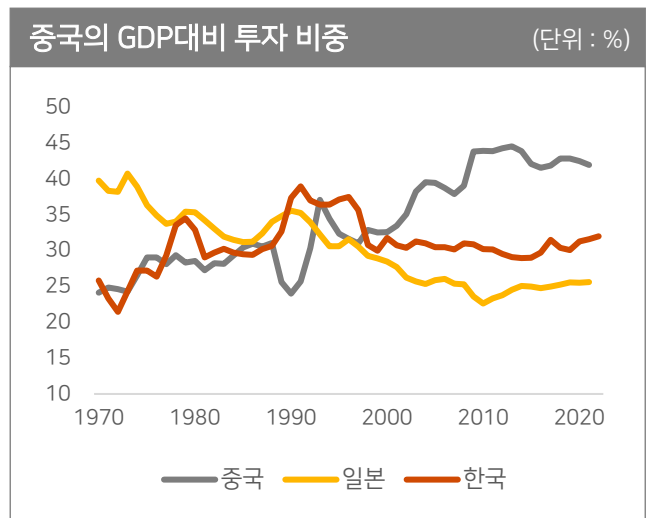
Source: IMF



Source: 중국 국가통계국,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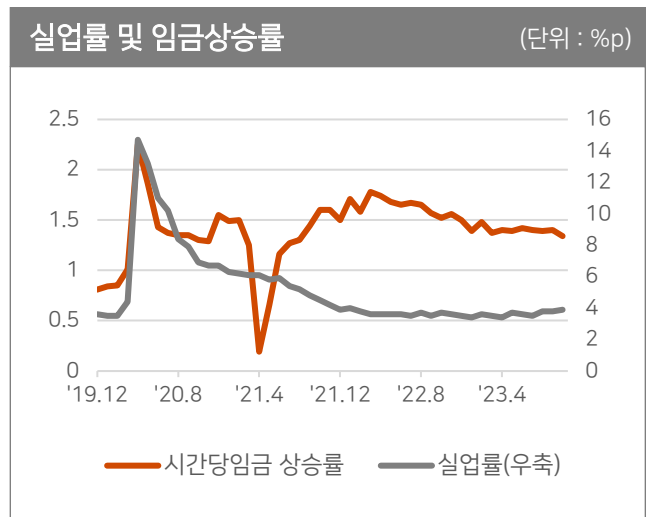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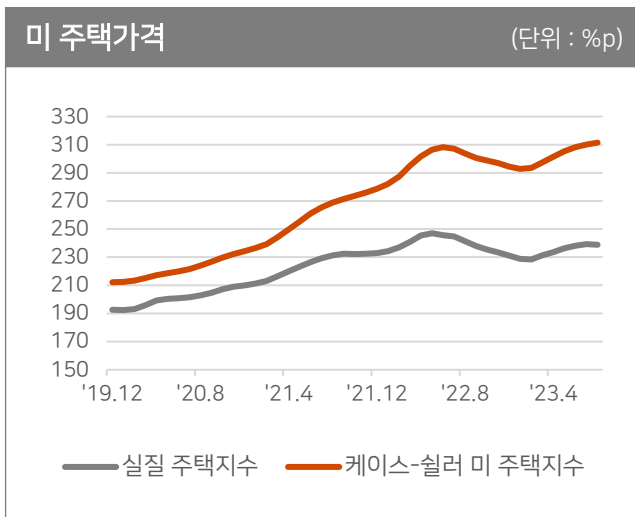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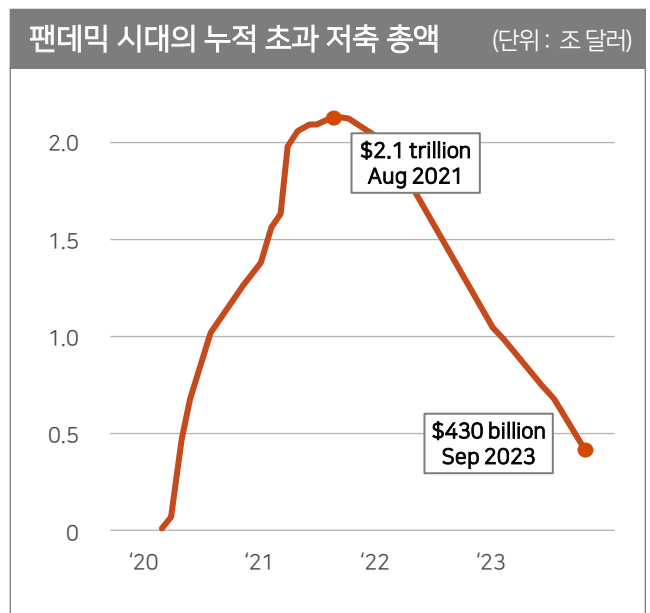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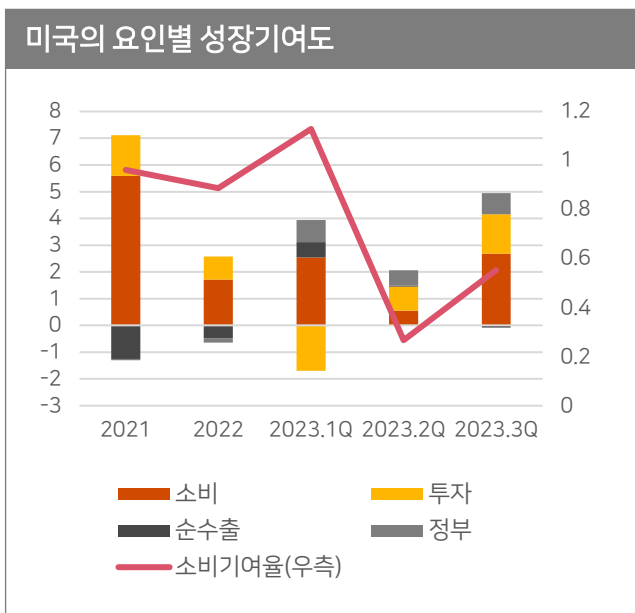
Source: OECD('23.09)



Source: World Bank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⑤ 미국 소비의 지속가능성

- 미국 소비의 방향성이 향후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전환과 글로벌 경제의 경로를 결정할 핵심변수 중 하나
  -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양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소비가 견조했기 때문
    - 미국 소비의 성장 기여율: 96%('21) → 89%('22) → 55%('23.1Q)
- 미국 소비를 뒷받침했던 여러 요인들이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커,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 ① 초과저축: '21.3Q를 정점(2.1조 달러)으로 지속 하락 중이나 '24년 상반기가 되어야 소진 예정 → '24년 하반기부터는 초과저축발 소비 증가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② 자산가격 상승: 주가가 물가 상승률 이상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실질 주택가격은 '22.5월을 정점으로 하락
  - ③ 고용 및 임금: 실업률은 4% 이하에서 안정 vs. 실질 임금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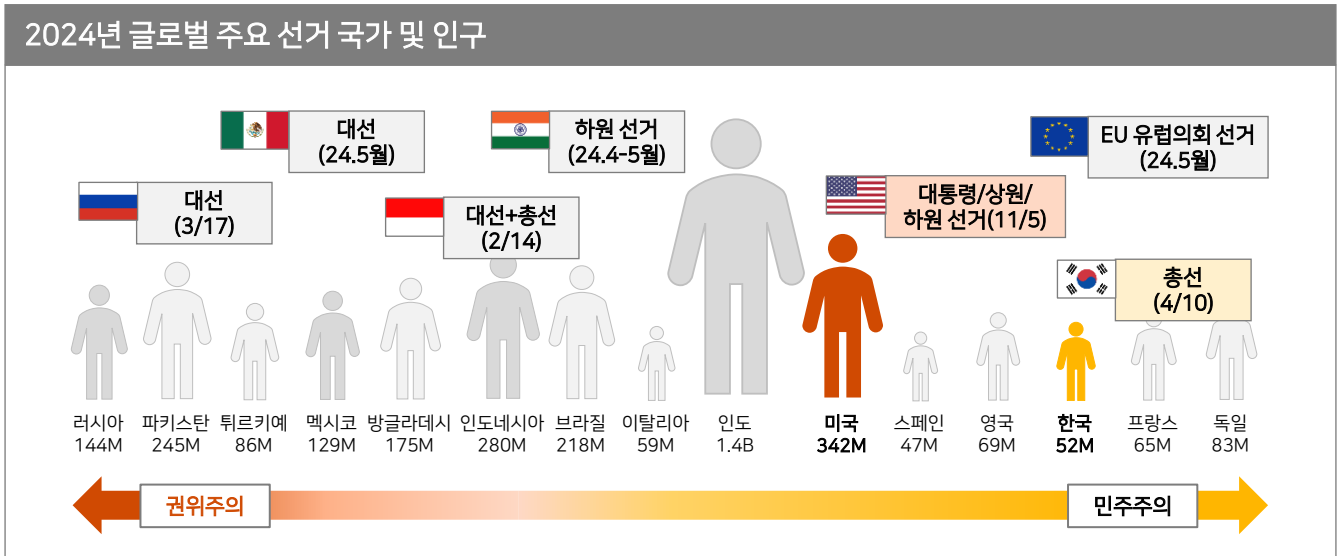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San Francisco Fed('23)



# 1-3. 글로벌 주요 이슈 : ⑥ 미국 대선

- '24년에는 유사이래 가장 많은 국가와 인구가 선거를 하는 해
  - 선거가 있는 국가는 76개 국가, 선거인구는 세계인구(81억 명) 중 50%가 넘는 42억 명



- 그 중 미국 대선('24. 11. 5)이 가장 큰 영향력이자 가장 큰 위험 요인 → '24.11월 선거이므로 1년 내내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
  - 대결구도: 바이든(민주당) vs. 트럼프(공화당)로 압축
  - 관건은 6개의 경합 주(Swing States)의 결과: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 의해 결과가 결정
  - 결과에 따른 정책과 경제로의 영향
    - 누가 당선되더라도 리쇼어링 정책 지속 및 중국 견제는 유지될 전망
    -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큰 변화없이 현재의 정책 진행 예상
    - 다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POST-2025 국제질서 체제라고 할 만큼 격변 예상
      - ①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강화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한 자국이익 증진 추진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
      - ② 러시아(구 소련지역에 대한 공격)와 중국(대만에 대한 공격)의 오판 가능성 → 국방비 증가로 경기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가능성
      - ③ 미동맹국가들의 각자 도생(자체 핵무장 등) 움직임
      - ④ 규칙 기반 국제질서 급격히 훼손
      - 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 감소로 ESG 활동 위축 가능성

정책	바이든(민주당)	트럼프(공화당)
공통점	반중 스탠스,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차이점	경제	확대 재정, 증세
	경제	자유무역 정책
	친환경	긍정적
	친환경	부정적
산업	친환경, 첨단산업 선호	제조업, 전통산업 선호
국방비	동결 주장	증액 주장

Source: The Economist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2-1. 한국 경제 현황

2-2. 한국 경제 전망

2-3. 국내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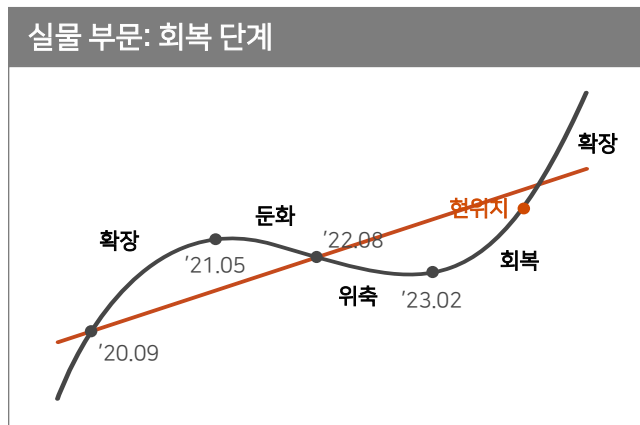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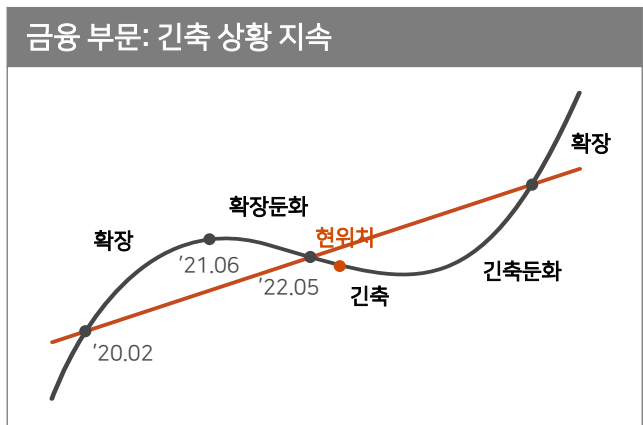
# 2-1. 한국 경제 현황 : 실물 회복 단계+ 금융 긴축 지속

- 실물 부문: 경기순환상으로는 '22년 침체기를 거쳐, '23.2월 저점 기록 후 회복 단계
  - 타 국가들이 당초 전망 대비 경기가 양호했던 반면, 한국은 회복 속도가 지연
    - '23년 경제전망 수정 추이(IMF, '22.10월 전망치 → '23.10월 전망치(%)) : 글로벌(2.1 → 3.0), 미국(1.0 → 2.1), EU(0.5 → 0.7), 일본 (1.6 → 2.0), 한국(2.0 → 1.4)
- 금융 부문: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22.5월 이후 긴축상황 유지
  - 다만,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긴축기조에 비해서는 양호

연초 대비 변화율 금융·자산시장 지표 변화율 (단위 : %)		
KOSPI('23.11.20 기준)	주택가격('23.10월 말 기준)	10년 국채금리('23.11.20)
+11.9	-6.6(전국 아파트가격)	3.73('22.12.30) →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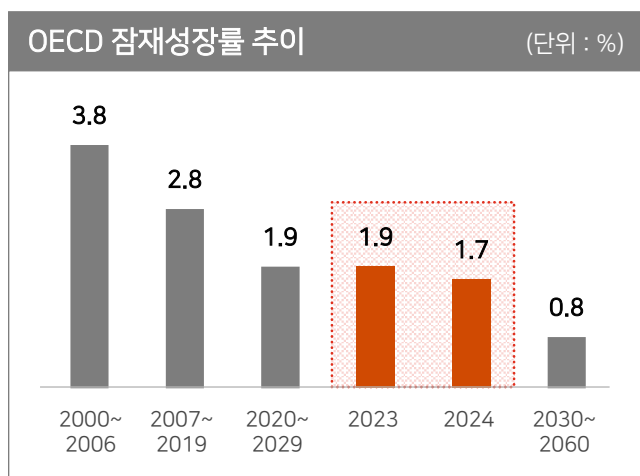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20.01~'2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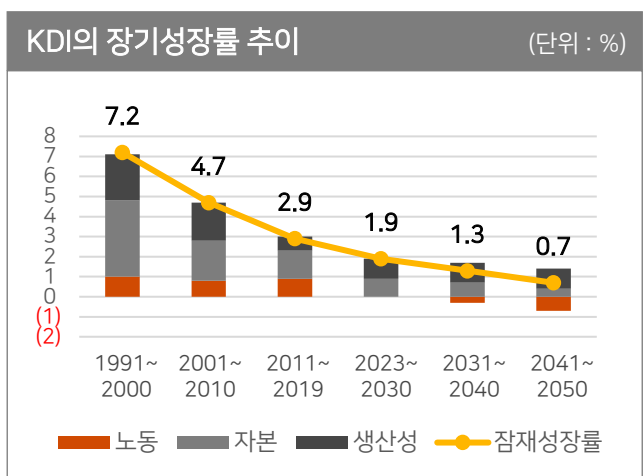


\*(한국) M2/GDP 수준 이용 ('20.01~'23.09)

-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질서가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작용.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Source: OECD, '23.06



Source: KDI, '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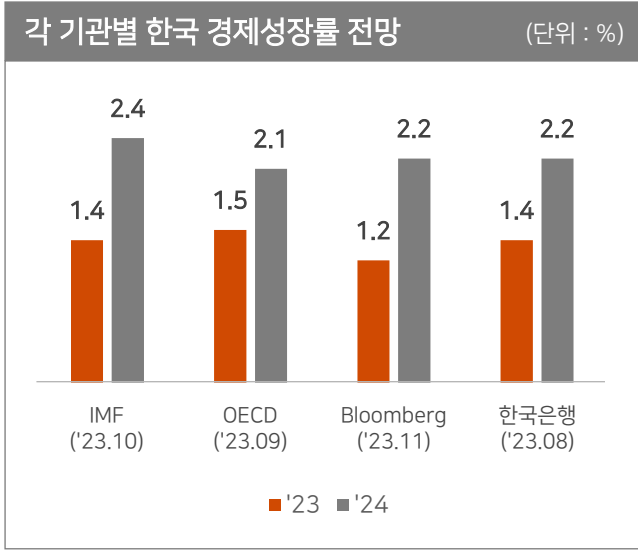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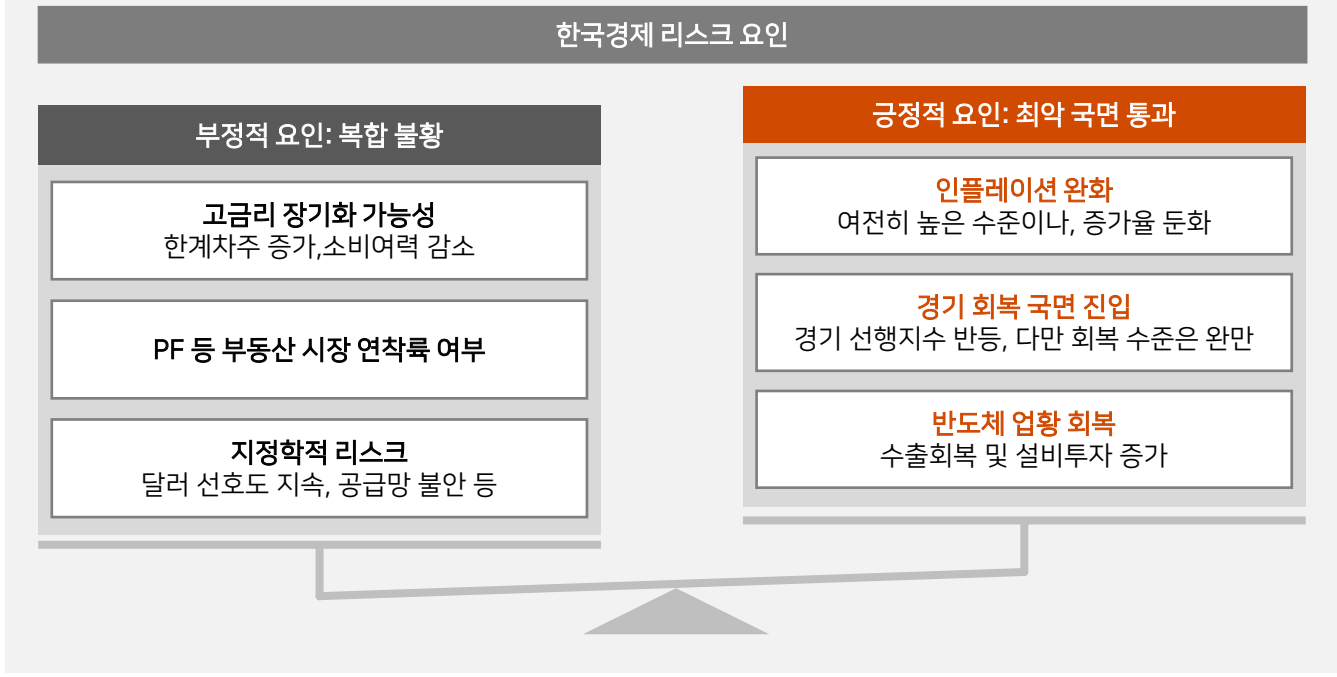
## 2-2. 한국 경제 전망

■ '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시장 컨센서스, '23.11월): 2.2%

-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년보다는 높으며,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초반 수준 전망이 대부분
- 내년도 성장은 글로벌 교역 증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상승이 견인
- 소비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부담 누적으로, 거시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

**Viewpoint**

■ '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 누적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성장세 속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



Source: 각 기관

부문별 성장률 전망(금융연구원) (단위 : %)

	'22	'23E	'24E
GDP 성장률	2.6	1.3	2.1
민간소비	4.1	2.1	2
건설투자	-2.8	2.5	-1.6
설비투자	-0.9	-1.4	3.4
총수출	3.4	1.3	2.6
총수입	3.5	2.5	2.4

Source: 금융연구원('23.11)

## 2-3. 국내 주요 이슈 :

### ① 지연된 디레버리징(부채조정): 가계

■ 주요 선진국은 팬데믹 이후 증가한 부채의 디레버리징 진행 vs 한국은 부채 지속 증가

- GDP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는 10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저금리를 바탕으로 큰 폭으로 증가('20년 이후 16.4% 급증)
- '22년 하반기 감소추세를 보이던 국내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23.2Q 이후 다시 증가세 전환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19.4Q	95.0	75.6	57.5	55.5	62.6
'20.4Q	103.0	79.3	62.1	61.9	67.6
'23.1Q	101.5	73.6	56.5	62.0	68.1

Source: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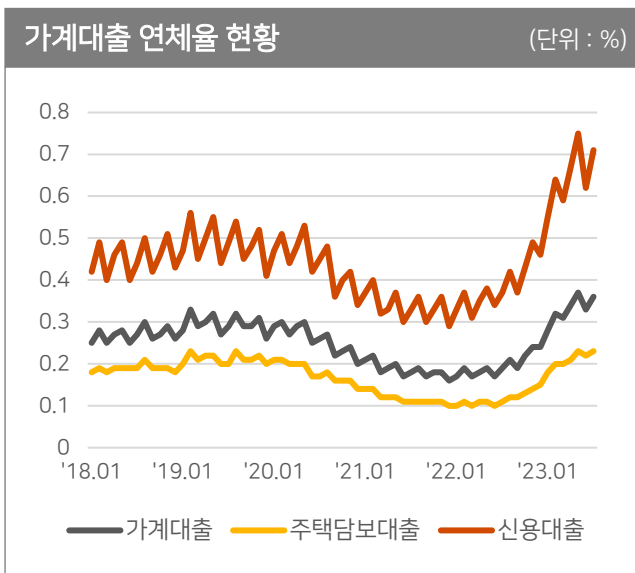
■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며 한계차주 큰 폭 증가 추세

- '22.2Q부터 가계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전환. 신용대출 연체율은 '15년 이후 최고 수준
- 금리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 큰 폭 확대 ('21년 말 2.7% → '23.1Q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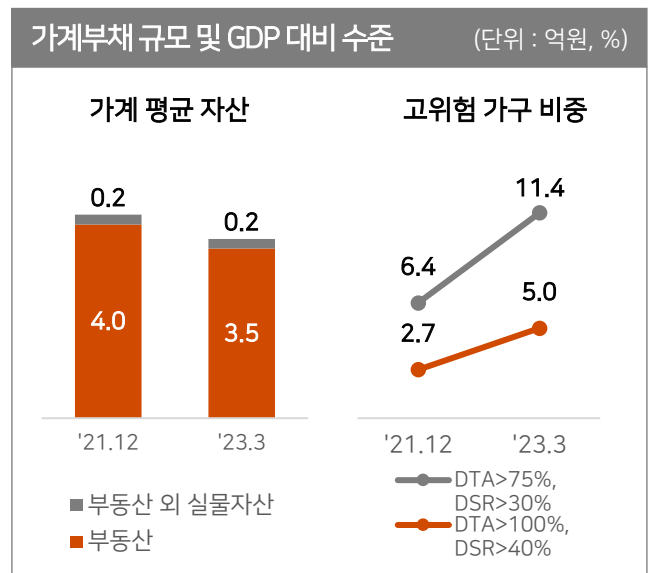
\* DTA(부채/자산비율) > 100% 이며,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 40% 인 가구

■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가 장기간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중장기 한국경제 활력도 저하

-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 소비 여력 축소
- 한계차주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우려 지속



은행권 가계대출 대상  
Source: 금융감독원



DTA: 부채/자산비율,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Source: 한국은행

## 2-3. 국내 주요 이슈 :

### ① 지연된 디레버리징(부채조정): 부동산 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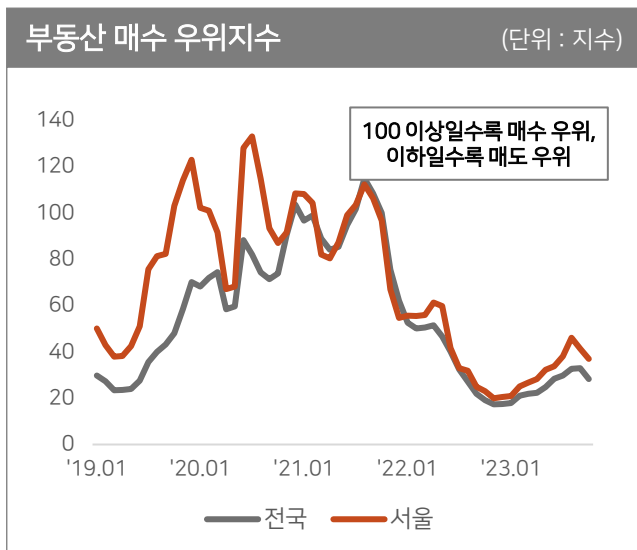
- '23.2Q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약 148조원으로,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 업권별로는 보험사가 44조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 있으며, 은행(43조 원), 여전사(24조 원), 새마을금고(16조 원), 저축은행(11조 원) 순
  - 은행 및 보험사는 건전성 양호하나, 증권·저축은행·여전사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
- 고금리 및 주택시장 침체 환경 지속 → 경제 전반 충격 방지를 위해 PF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
  - 가격 부담, 금리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되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 다만, '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PF 정상화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례 고려 시, 정부는 빠른 부실처리 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PF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6월
은행	25.8	32.2	39.0	43.1
증권	5.2	4.6	4.5	5.3
보험	36.4	42.0	44.3	43.7
저축은행	6.9	9.3	10.6	10.6
여신전문	13.8	19.5	26.8	24.1
상호금융	4.1	4.9	4.8	4.8
새마을금고	2.9	9.1	15.5	16.3
합계	95.1	121.6	145.5	1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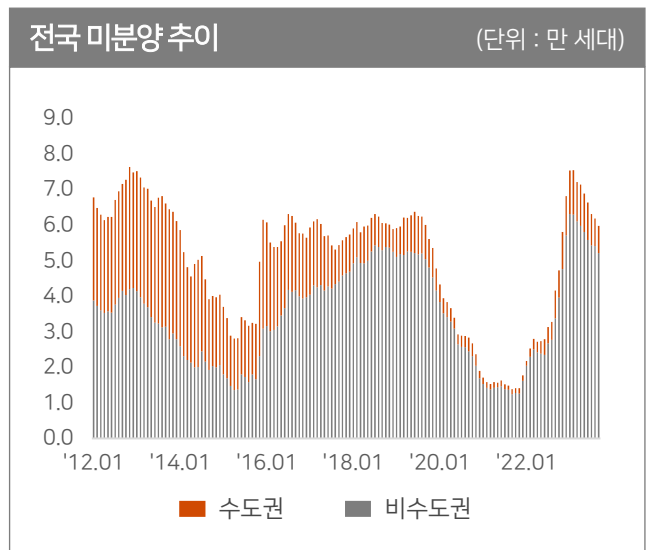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6월
은행	0.29	0.03	0.01	0.23
증권	3.37	3.71	10.38	17.28
보험	0.11	0.07	0.60	0.73
저축은행	2.43	1.22	2.05	4.61
여신전문	0.28	0.47	2.20	3.89
상호금융	0.30	0.09	0.09	1.12
새마을금고	0.00	0.07	0.39	na
평균	0.54	0.80	1.10	2.17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KB부동산



Source: 국토교통부

## 2-3. 국내 주요 이슈 : ② 통화정책 제약 요인

-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하였으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인상 중단도 먼저 착수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내용			
구분	한국	미국	EU
금리 인상 시작	'21.8	'22.3	'22.7
금리 인상 중단	'23.1	'23.7	'23.10
중단 기간	10개월	4개월	1개월
금리 인상 수준	0.5→3.5 (3%p)	0.25→5.5 (5.25%p)	0→4.5(4.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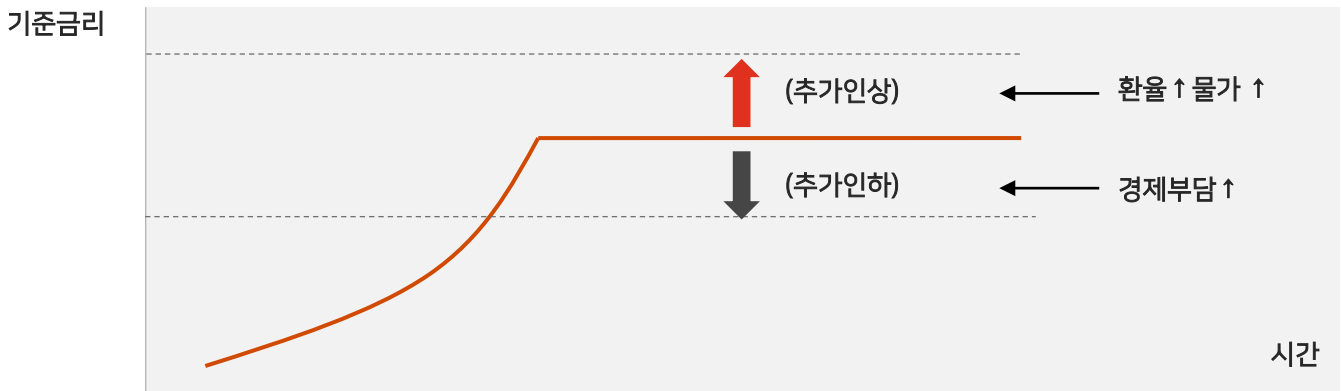
- 향후 국내 통화정책은 ① 인플레이션 ②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차 ③ 환율 ④ 경제 상황 등에 의해 기준금리의 상한과 하한이 제약



### Viewpoint

- 기준금리 3.5%에서 변동시키기 어려울 전망
- 다만 경제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환율, 물가가 감내할 수준에서 움직일 경우에만 점차 인하 가능

한은의 기준금리 상.하한 결정 변수	
(상한) : 경제부담	(하한) : 환율-물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동금리부 대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액기준 COFIX 추이: 1.37%('22.01) → 2.05%('22.07) → 3.52%('22.12) → 3.83%('23.07) → 3.9% ('23.10)</li> </ul> </li> <li>• 부동산 PF 붕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잔액(23.6말, 148조원으로 22년말 대비 2.5조원 증가)</li> </ul> </li> <li>•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경착륙, 경제 성장률 하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금리차에 따른 환율 폭등 시</li> <li>• 물가 충격이 추가될 경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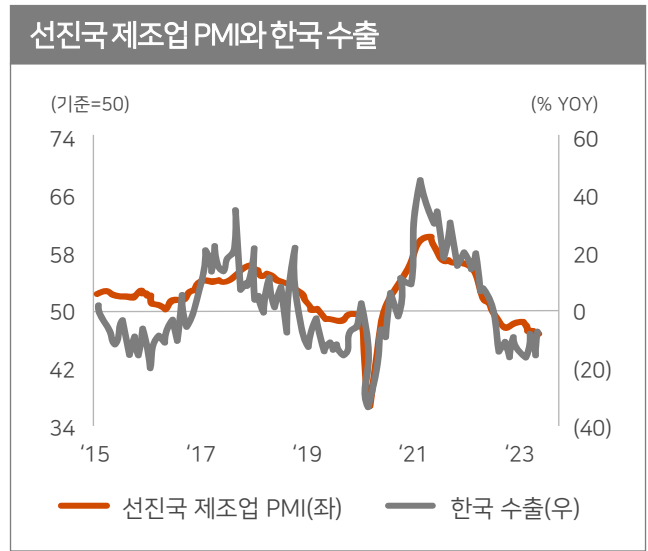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2-3. 국내 주요 이슈 : ③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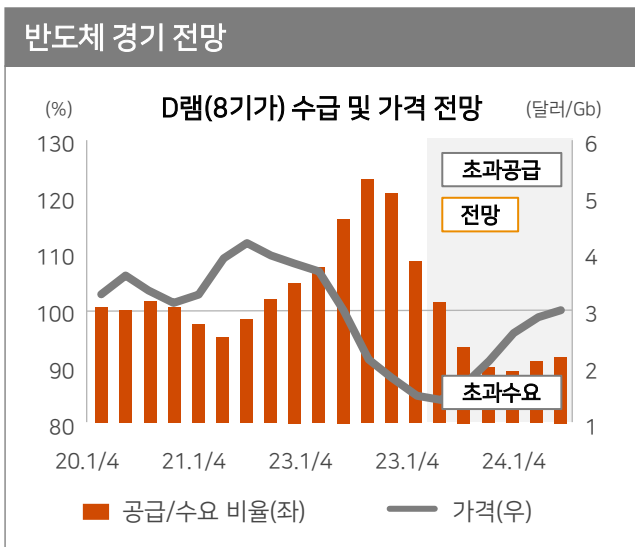
- 글로벌 교역량 증가, 선진국 제조업 PMI 반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 회복 전망
  - 新 경제환경 적응 후, '24년 글로벌 교역량 증가 전망: '23년 잠정 0.9% → '24년 전망 3.5%(IMF)
  - 또한 재고 조정 사이클 마무리되며, 선진국 제조업 PMI 증가 전망
- 경기사이클과 선진국 소비에 민감한 IT, 소재 위주 수출 증가 기대
  - 반도체는 감산 및 재고소진 이후 '24년부터 초과수요 국면으로 전환되며 수출 회복 가시화. 한국 수출 내 반도체 비중이 재차 높아질 것(22년 19% → '23년E 15%)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공급망 이슈 및 수요 감소 등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글로벌 교역량 전망		
전망기관	'23	'24
IMF('23.10)	0.9	3.5
OECD('23.07)	1.9	3.8
세계은행('23.6)	1.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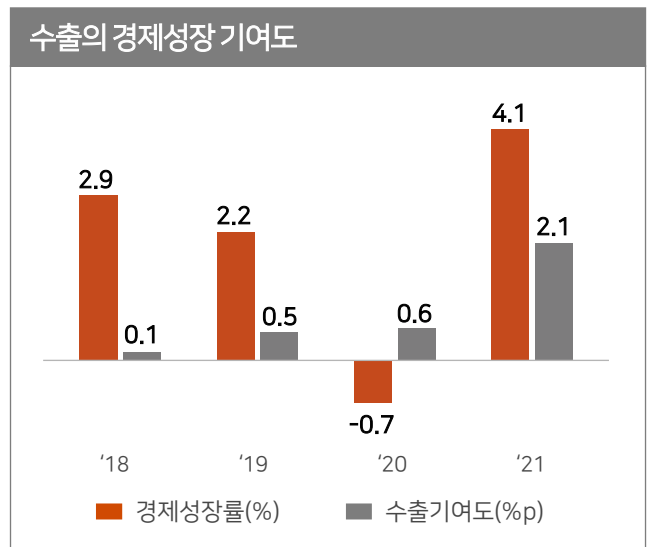
Source: 각 기관



Source: Thomson Reuters, 신한투자증권 재인용



Source: Gartner('23.7월), 한국은행



수출 기여도(%) = (Δ수출에 의한 실질 부가가치액/전년도 실질GDP)\*100  
Source: 한국무역협회



## 2-3. 국내 주요 이슈 : ④ 디리스팅 적응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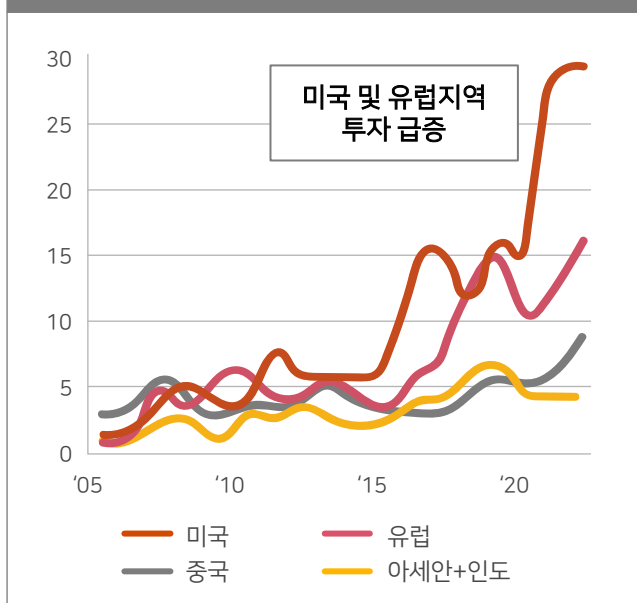
-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에 이어, 디리스팅(de-risking, 위험제거) 부상
  - 뉘앙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공급처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은 지속
- 한국은 GVC(Global Value Chain) 최대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공급망 개편 리스크에 노출
  - 한국의 GVC 참여율(53.1%) = 전방(19.7%) + 후방(33.4%), '21년 기준
  - 脫 중국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며, 특히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 대중국: 취약 중간재(604개), 중간재 수입의존도(23.9%), 핵심광물(리튬 58%, 흑연 88%, 코발트 40%, 희토류 54%)
- 과거 대비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였지만, 공급망 재편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지속될 것. 한국의 디리스팅 속도보다 미-중 견제 속도가 빠르다면, 공급망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 높음
  - 첨단 IT 분야 중심으로 미국 ·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 및 이전 필요
  - 특히, 수출입 부문에서 중국 비중이 큰 업종은 공급망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

글로벌 핵심광물 점유율(백악관 보고서, '21.6월)

제련기준	리튬	코발트	니켈
1위	중국(60%)	중국(72%)	러시아(21%)
2위	칠레(30%)	핀란드(9%)	중국(16%)
3위	아르헨티나(10%)	캐나다(4%)	일본(15%)
4위	-	노르웨이(4%)	캐나다(13%)

한국의 지역별 직접투자

(단위 : 십억달러)



Source: Thomson Reuters, 신한투자증권

업종별 수출 기여도 및 중국 의존도

(기준 : '20년)

	전체 수출 내 비중	대중국 비중
반도체	19%	40%
자동차	12%	2%
석유화학	11%	38%
석유정제	10%	7%
기계	8%	19%
철강	5%	11%
정밀화학	3%	34%
정밀기기	3%	40%
비철금속	3%	26%
조선	3%	1%
전자	1%	6%

Source: 산업연구원

##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 ① 산업 지형

- '23년은 일부 업종(호텔레저, 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
- '24년 역시 지지부진한 경기로 인해 본격적 실적 회복은 어려울 전망. 다만 新 경제환경(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한 경제 주체들이 적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회복 추세로 전환 예상
  -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IT와 화학의 실적 증가 기대. 반도체 회복 강도가 KEY factor
  - 전반적 업종의 매출과 이익(절대)수준은 여전히 22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21	'22	'23E	YoY	'24E	YoY	'21	'22	'23E	YoY	'24E	YoY
전 업종	2,620	3,202	2,758	-14%	2,988	8%	261	231	181	-22%	275	52%
에너지	141	231	222	-4%	235	6%	8	17	12	-30%	14	18%
화학	141	179	132	-26%	151	14%	15	9	5	-42%	10	87%
철강	145	174	126	-27%	133	5%	15	11	8	-30%	8	10%
건설	131	154	112	-27%	112	1%	9	7	5	-32%	6	20%
기계	76	93	85	-9%	91	7%	4	5	6	25%	7	9%
조선	41	45	54	21%	65	20%	-6	-3	1	흑전	3	449%
운송	82	107	89	-17%	93	4%	11	17	7	-57%	7	-6%
자동차	329	403	391	-3%	411	5%	17	24	35	47%	35	0%
호텔,레저	8	10	7	-29%	8	3%	0	0	1	214%	1	3%
소매(유통)	83	94	86	-8%	92	7%	2	2	2	4%	3	31%
필수소비재	136	158	92	-42%	96	5%	8	9	6	-35%	6	13%
건강관리	56	62	32	-48%	36	11%	6	5	4	-28%	5	41%
은행							29	29	30	6%	32	5%
SW(인터넷)	58	68	54	-21%	61	13%	6	6	5	-15%	6	36%
IT하드웨어	72	88	54	-38%	61	13%	4	5	2	-57%	4	88%
반도체	351	383	306	-20%	370	21%	68	55	-2	적전	46	흑전
통신서비스	56	57	58	2%	60	3%	4	4	5	3%	5	6%
유틸리티	116	161	156	-3%	162	4%	-4	-30	-4	-87%	8	흑전

\* 전체 상장사 대상  
Source: Quantiwise ('23.11)

##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 ① 산업 지형

Positive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 회복과 절제된 공급 기조 속 사이클 개선 기대</li> <li>AI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며, 시스템 반도체 등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 전망</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회복으로 화학 수요 점차 개선 전망</li> <li>향후 2년간 증설 규모 축소로 수급 밸런스는 개선되겠으나, 누적된 공급 과잉 해소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 이후 이어진 수주 호황에 따라 실적 개선 가시화</li> <li>환경규제 강화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기대</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대형 AI 모델 상용화와 온라인광고 시장 점진적 회복</li> <li>다만, 다변화되는 채널 수요는 중장기적인 위협요인</li> </ul>
Neutra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상외로 견조한 '23년 효과로 '24년은 완만한 내리막 전망</li> <li>'24년도 선진국 중심으로 볼륨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테슬라의 가격인하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공급 조정</li> <li>M&amp;A 및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업계 경쟁 구도 변화</li> </ul>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국면</li> <li>'23년 분양 및 착공물량 감소가 현실화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 시 건설사들의 '25년 주택사업 매출 감소 불가피</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금리 지속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건전성 악화</li> <li>'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 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 전망</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가 중요</li> </ul>

##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 ② 유망 산업

- 주요 패러다임 변화 3가지 1)디지털, 2)ESG, 3)인구고령화에 따른 향후 유망산업: ①인공지능, ②배터리, ③원자력발전, ④스마트농업, ⑤로봇

패러다임 변화 속 유망산업	
Digital	1. 인공지능: 생성형 AI 시대 도래, AI 반도체 급부상
ESG	2. 배터리: 자원 전쟁의 중심 배터리 산업, 대세는 LFP 3. 원자력발전: 만만찮은 탄소중립, 주목받는 원자력 산업
인구고령화	4. 스마트농업: 농업 노동력 감소,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방안 5. 로봇: 인구 감소 시대, 공장을 채운 '로봇'

5가지 유망 산업 요약	
유망 산업	요약
1.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은 향후 산업·경제적 변화를 주도할 핵심기술로 부상</li> <li>• '22년 말에 등장한 생성형 AI는 산업 생태계 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혁명을 일으킬 것</li> <li>•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 중</li> <li>• AI 반도체 시장 또한 AI 서비스 고도화, 및 AI 응용처 확대 추세에 따라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li> <li>•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여 외산 AI 반도체에 의존할 우려 존재</li> <li>• 국내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규제 완화, 기업 간 협력이 절실</li> </ul>
2.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달성 요구, 전동화·무선화 산업발달 및 기술 패권 시대의 도래로 배터리 산업 부상</li> <li>• '에너지 밀도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처별로 시장 세분화되어 성장 전망</li> <li>• 삼원계 배터리(국내 주력)에 비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배터리(중국 주력)가 기술 격차 해소 및 저가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 성장 중</li> <li>• 국내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소재, 셀, 팩 제조 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자원 공급망 제한되면서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부문 중요성 부각</li> <li>•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침체 및 LFP 배터리 침투율 높아지면서 국내 생산 배터리 수요 둔화 예상되나, 전기차 전환 재개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 필요</li> </ul>

## 2-4. 주요 산업 지형 및 유망 산업 전망 : ② 유망 산업

5가지 유망 산업 요약	
유망 산업	요약
3. 원자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 위해 원자력 역할 부각</li> <li>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얼어붙었던 원전 건설 재개 조짐</li> <li>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원전 설비 용량이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원전 확대에는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방안 확보가 전제조건</li> <li>기술개발 중인 SMR(소형모듈화원전)이 게임 체인저로 조명</li> <li>한국은 원전 강국이나 SMR 시장 중주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 필요</li> </ul>
4. 스마트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농업이란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공학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종자 개발, 작물 생육, 수확, 유통 및 소비 등을 포괄하는 농업 밸류체인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li> <li>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51억달러로 연평균 17%로 성장해 2027년 약 330억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li> <li>국내 시장 규모는 '18년 약 4.75조원에서 연평균 5% 성장하여 '22년 5.98조원 규모 형성 추정</li> <li>스마트 농업 분야 핵심 기술 트렌드는 초기에는 농기계 전동화, 환경 측정 및 원격제어 설비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S/W, 빅데이터, IoT 및 센서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편의성 제고를 넘어선 완전 무인화 및 지능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li> </ul>
5.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구조의 변화 및 스마트 팩토리 증가로 인해 로봇 산업의 중요성 대두</li> <li>산업용 로봇 중 안전하고 범용성이 높은 협동 로봇의 글로벌/국내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국내 협동 로봇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S/W 개발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제품 다양화 필요</li> <li>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 또한 기대되며, 특히 완전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이동로봇(AMR)의 점유율 확대 전망</li> <li>로봇 부품 시장의 핵심 산업은 구동용 부품 산업으로, 현재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구동용 부품 국산화율은 15%에 불과 → 부품 기술의 적극적인 R&amp;D 필요</li> <li>국내 로봇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에서 점차 대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및 중소기업 보호 대책 마련 필요</li> </ul>

상기 유망산업 내용은 요약본 Preview 자료로, 본편 보고서는 '23.12월 중순에 발간 예정

## Author Contacts

###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이은영 Managing Director

eunyoung.lee@pwc.com

오선주 Senior Manager

sunjoo.oh@pwc.com

강서은 Manager

seo Eun.kang@pwc.com

최형원 Senior Associate

hyungwon.choi@pwc.com

신서윤 Assistant-Associate

seoyoon.shin@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S/N: 2312W-RP-046

© 2023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